# **Virtual Memory**

# 가상 메모리

#### • 장점

- 메인 메모리를 하드 디스크의 캐시로 처리하여 더 넓은 메모리 공간을 제공한다. 즉,
  임시 데이터를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기본 메모리로 가져
  올 수도 있다
- 메모리 크기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사용자 프로그램이 실행에 필요한 최소 크기의 메모리만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 수행 가능해졌다.
- 추가 권한 비트를 사용하여 각 프로세스에 메모리에 대한 제한된 권한을 부여하여 메모리를 보호한다. OS는 권한 비트를 확인하여 하나의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 의 메모리 공간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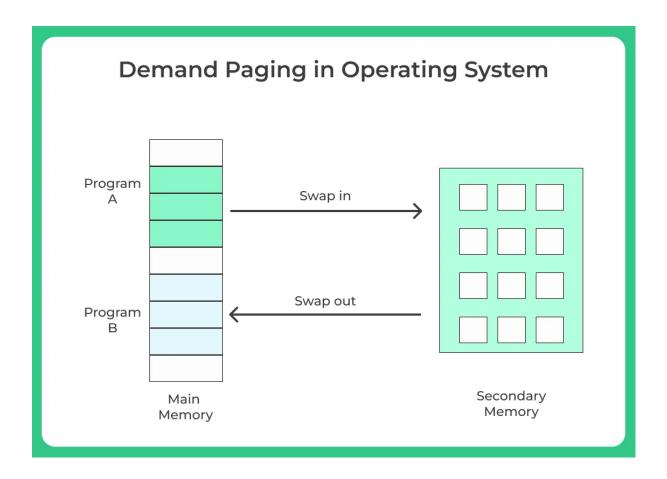
#### • 단점

- 프로그램이 현재 메모리에 없는 페이지에 엑세스하면 디스크에서 페이지를 가져오는 동안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.
- 디스크 입출력이 많아지면 시스템의 전반적인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할수 있다.

# **Demand Paging**

OS에 실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데에 300MB의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가정하고, 현재 RAM에 저장된 사용 가능한 물리적 메모리는 50MB라고 가정하자.

- OS에 250MB의 가상 메모리를 설정하고 VMM(Virtual Memory Manager)를 사용하여 250MB를 관리한다.
- 이 경우 VMM은 필요한 추가 메모리를 저장하기 위해 250MB 크기의 파일을 디스크에 생성한ㄴ다.
- 이제 OS는 RAM에 저장된 300MB의 실제 메모리를 고려하므로 50MB의 공간만 사용할 수 있더라도 메모리 주소 지정을 계속한다.
- 50MB의 실제 메모리 공간만 사용할 수 있더라도 300MB의 메모리를 관리하는 것이 VMM의 역할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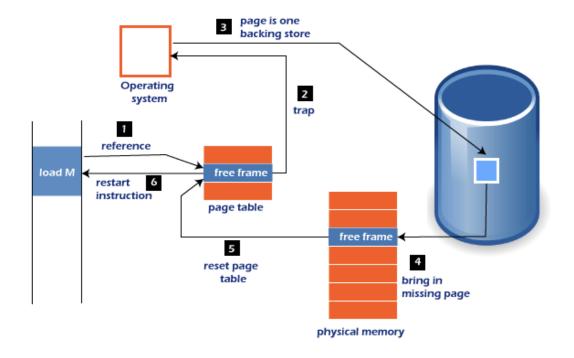
Demand Paging은 페이지 테이블에서 해당 페이지가 메모리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유/무효 비트를 사용한다.

비트가 무효인 경우 페이지가 물리적 메모리에 없다는 것으로 페이지 부재가 발생한다.

# 페이지 부재 처리 과정

- CPU가 특정 페이지를 접근하여 페이지 테이블에서 유/무효 상태를 확인한다.
- 페이지가 무효 상태일 때 MMU에서 페이지 부재 트랩이 발생한다. (page miss)
- 디스크에서 해당 페이지를 빈 프레임에 적재하고 페이지 테이블을 업데이트 합니다. (무효 → 유효)
- 트랩에 의해 중단되었던 명령을 다시 수행한다.

MMU(Memory Management Unit) : 가상 주소를 물리 메모리 주소로 변환해주는 하드웨어 장치



여기서 어떤 페이지를 탈락시키고 어떤 페이지를 프레임에 올릴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에 따라 성능이 결정된다. 때문에 적절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.

#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

페이지 부재가 발생하면 요청된 페이지를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가져온다. 이 때, 물리적 메모리에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. 그럴 경우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디스크를 옮겨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페이지 교체라고 한다.

어떤 페이지를 교체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페이징 부재를 줄여  $\frac{ 쓰레싱}{9}$ 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

## Thrashing(쓰레싱)

쓰레싱이란 메모리 영역에 접근하게 될 때, 메모리에 페이지 부재율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, 이는 심각한 성능 저하를 초래한다.

#### 쓰레싱의 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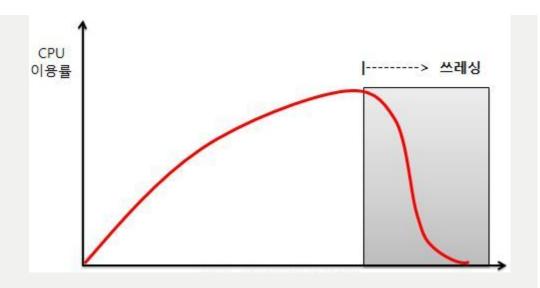
-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CPU이용률이 높아지고, CPU 이용률이 최대값에 도달했을 때, 다중 프로그래밍의 정도가 그 이상으로 커지게되면 쓰레싱이 일어나게 되고 CPU이용률은 급격히 떨어진다.
- 운영체제는 CPU이용률을 감시하며, CPU이용률이 너무 낮아지면 새로운 프로세스를 시스템에 추가하여 다중 프로그래밍의 정도를 높이게 된다. 이 때 전역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어떤 프로세스의 페이지인지에 대한 고려없이 교체를 수행하게 된다.

그런데, 이때 교체된 페이지들이 해당 프로세스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면 그 프로세스 역시 페이지 폴트를 발생시키고 또 다른 프로세스에게서 프레임을 뺏어온다.( 다른 프로세스가 필요로 하는 페이지를 탈락시키고 자신의 페이지로 채워넣는다.)

이러한 프로세스들이 페이지 스왑 인, 스왑 아웃을 위해 페이징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, 이 장치에 대한 Queueing이 진행되며 Ready - Queue는 비게 된다.

프로세스들이 페이징 장치를 기다리는 동안 CPU이용률을 떨어지게 되고, CPU스케줄러는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프로세 스를 추가하여 다중 프로그래밍의 정도를 더 높인다.

새로 시작하는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들로부터 프레임을 가져오고 자 하며, 더 많은 페이지 폴트와 더 긴 페이징 대기시간을 야기하게 된다.



쓰레싱은 지역교환 알고리즘이나 우선순위 교환 알고리즘을 사용해 제한할 수 있다.

쓰레싱을 해결하는 방법은?

- 각 프로세스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프레임 갯수를 보장한다.
- locality를 이용한다.
-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를 낮춘다. → Working Set을 이용하여 다중 프로그래 밍 정도를 낮출 수 있다.

# **Working Set**

프로세스는 일정 시간 동안 특정 주소를 집중적으로 참조하는 경향이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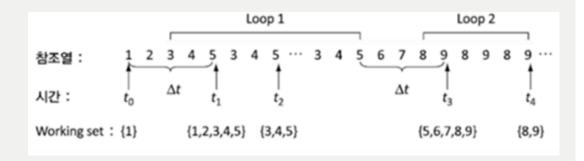
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참조한 페이지들을 메모리에 적재함으로써 페이지 부재를 최소화한다.

Working Set, W(t,  $\Delta$ t)는 프로세스가 [t –  $\Delta$ t ,t] 시간 동안 참조한 페이지들의 집합이다.  $\Delta$ t는 일정 크기의 시간으로 Window Size라 부르고 시스템에 의해 적절한 값으로 정해진다.

Window Size를 너무 크게 잡으면 지역성에 포함되는 페이지들 외에 다른 페이지들도 Working Set에 포함될 수 있게 되어 메모리의 낭비와 적절한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를 유지하기 힘들다.

너무 작게 잡으면 지역성에 포함되는 페이지들조차 Working Set에서 빠져 쓰레 싱을 겪게 될 것이므로 시스템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.

예시를 보자.



- 1. 프로그램의 실행이 시작된 후 t0부터 처음 참조되는 페이지들은 부재를 겪으며 점차 Working Set을 키워 가다가 t1에서 최대 크기인 5가 된다.
- 2. 이후부터 지역성을 보이면서 t2에서와 같이 (세 개의 페이지로 Loop 1을 구성하는 동안에는) 일정한 크기(=3)을 유지됨
- 3. 실행이 진행되면 다음 지역성을 보이는 Loop 2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t3에서 5개로 증가했던 Working Set은 점점 줄어들어 t4에서와 같이 페이지 두 개로 구성되는 강한 지역성을 보여줌

지역성을 표현하는 Working Set을 메모리에 유지함으로서 스레싱을 방지한다. 크기에 변동이 있으므로 Working Set이 작아지면 프레임을 회수하고 커지게 되 면 그만큼 프레임을 더 할당해 주는 가변 할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.

####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들이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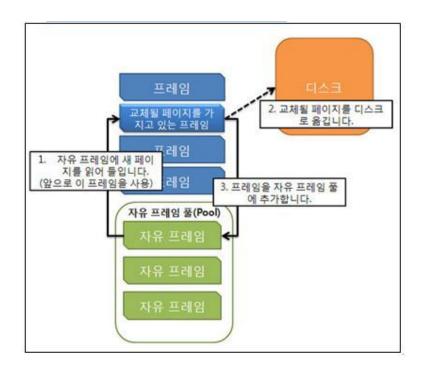
- FIFO(First In First Out)
  - o 가장 먼저 들어온 페이지를 교체한다.
- LRU(Least Recently Used)
  -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한다.
  -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의 지원이 필요하고, 아래 두 가지 방법 이 가능하다.
  - 계수기(Counters): 각 페이지 항목마다 최근 사용된 시간을 넣는다.

- 스택(Stack) : 페이지 번호에 대한 스택을 유지하며, top이 가장 최근, bottom이 가장 오래된 페이지가 된다.
- LRU Approximation(LRU Approximation Page Replacement)
  - LRU page replacement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거의 없다.
  - 。 그러나, 많은 시스템들이 reference bit의 형태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려고 한다.
  - 처음에 모든 참조 비트는 0으로 초기화되고, 프로세스가 실행되면서 참조되는 페이지의 비트는 1로 바뀐다.
  - 1. 부가적 참조 비트 알고리즘(Additional Reference Bits Algorithm)
    - a. 일정한 간격마다 참조 비트를 기록함으로써 추가적인 선후 관계 정보를 얻을 수 있다.
    - b. 각 페이지에 대해 8비트의 참조 비트를 기록하고, 가장 최근 8구간 동안의 해당 페이지의 사용 기록을 담는다.
  - 2. 2차 기회 알고리즘(Second Chance Algorithm)
    - a. 2차 기회 알고리즘의 기본은 FIFO 알고리즘이다. 이와 함께 페이지가 선택될 때마다 참조 비트를 확인한다.
    - b. 참조 비트가 0이면 페이지를 교체하고, 1이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뒤 FIFO로 넘어간다.
  - 3. 개선된 2차 기회 알고리즘(Enhanced Second-Chance Algorithm)
    - a. (0, 0): 최근에 사용되지도 변경되지도 않은 경우 (교체하기 가장 좋은 페이지)
    - b. (0, 1) : 최근에 사용되지는 않았지만, 변경은 된 경우 (교체에 적당하지 않은 페이지)
    - c. (1, 0) : 최근에 사용은 되었으나, 변경은 되지 않은 경우 (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페이지)
    - d. (1, 1): 최근에 사용도 되었고, 변경도 된 경우 (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교체에 적당하지 않은 페이지)
- LFU(Least Frequently Used)
  - 참조 횟수가 가장 작은 페이지를 교체한다.
    - 단점: 가장 최근에 불러온 페이지가 교체될 수 있다. 이는 큰 오버헤드를 초래할 수 있다.
- MFU(Most Frequently Used)

- 。 참조 횟수가 가장 많은 페이지를 교체한다.
  - 가장 많이 사용된 페이지가 앞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.

## OPT(Optimal)

- 앞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페이지를 내린다는 최적 알고리즘이다. 가장 이상적인 알고리즘이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성능 비교 목적으로 사용된다.
- NUR(Not Used Recently)
  - clock algorithm
- · Page-Buffering Algorithm
  - 여러 개의 자유 프레임을 pool에 넣어 가지고 있다가 페이지 교체가 필요할 때 자유 프레임에 새로운 페이지를 읽어 들이고, 희생된 프레임을 찾은 뒤 프레임을 디스크 에 기록하고 자유 프레임 풀에 추가한다.



# 프레임의 할당(Allocation of Frames)

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에 대해 제한된 메모리를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.

# 최소로 할당해야 할 프레임의 수(Minimum Number of Frames)

- 페이지 공유가 없다면, available frame 수보다 더 많이 할당할 수는 없지만, 너무 작게 할당해서는 안 된다.
- 각 프로세스에 할당되는 frame 수가 줄어들면 page fault rate는 증가하고, 프로세스 실행은 늦어지게 된다.

# 할당 알고리즘(Allocation of Algorithms)

- 가장 쉬운 할당 방법은 모든 프로세스에게 똑같이 할당해 주는 방법이다.
- 예를 들어 93개의 frame과 5개의 프로세스가 있을 경우, 각 프로세스는 18개의 frame 을 할당받는다.
- 나머지 3개의 frame은 free frame buffer pool로 활용한다.
- 이런 방법을 균등 할당(Equal Allocation)이라고 한다.
- 그러나, 10KB와 132KB의 프로세스가 있을 경우, 균등 할당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
- 이에, 각 프로세스의 크기 비율에 맞춰 frame을 할당하는 비례 할당 방식 (Proportional allocation)을 사용할 수 있다.
- 균등 할당과 비례 할당은 모두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다.

#### 전역 대 지역 할당(Global vs Local Allocation)

- 다수의 프로세스가 frame할당을 위해 경쟁하는 환경에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.
- (1) 전역 교체 (Global Replacement) (2) 지역 교체 (Local Replacement)
- 전역 교체는 프로세스가 교체할 frame을 다른 프로세스에 속한 frame을 포함한 모든 프레임을 대상으로 찾는 경우이다.
- 지역 교체는 각 프로세스가 자기에게 할당된 frame들 중에서만 교체될 victim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이다.
- **전역 교체**에서는 한 프로세스에 할당된 프레임의 수는 바뀔 수 있다.
- **지역 교체**에서는 프로세스에 할당된 프레임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.

- 전역 교체 알고리즘에서의 한 가지 문제점은 한 프로세스가 자신의 page fault rate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.
  - 한 프로세스의 page fault rate는 그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세스들과 함께 실행되느냐에 영향을 받는다.
- 지역 교체 알고리즘의 경우 다른 프로세스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, 유일하게 그 프로세스의 페이징 형태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.
- 일반적으로 **전역 교체**가 <mark>지역 교체</mark> 알고리즘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, 더 자주 쓰인다.

## 비균등 메모리 접근(Non-Uniform Memory Access)

- 메모리 접근 시간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시스템을 모두 비균등 메모리 접근(NUMA) 라고 한다.
- 이러한 시스템에서 메모리를 동등하게 대하면, NUMA 구조를 고려한 메모리 할당 알고 리즘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보다 CPU가 메모리를 접근할 때 대기 시간이 매우 길어지 게 된다.

버디 시스템

Slab allocation

other consideration

prepaging

page size

tlb reach

inverted page table

# 기타 고려 사항

## 프리 페이징(Prepaging)

- Spatial Locality에 기반하여 참조되는 페이지 외에도 주변 페이지들이 참조될 가능성이 높기에 미리 로드해 놓는 것이다.
- 요즘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. 대신 prepaging과 비슷한 기법이 있다.



### **Request Paging**

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페이지들을 미리 메인 메모리로 로드하는 기법

# 페이지 크기(Page Size)

-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를 작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큰 크기의 페이지가 좋다.
- 할당해 준 메모리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은 크기의 페이지가 좋다.(내부 단편 화를 줄임)

#### **TLB Reach**

- TLB Reach란 TLB로부터 엑세스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의 크기이다.
  - TLB(translation-lookaside buffer)는 MMU안에 있는 특수 소형의 캐시이다.
- TLB Reach = (TLB에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 개수) x (page size)
- 여러 크기의 페이지를 수용하려면 TLB는 운영체제가 관리를 해야 한다. 그러면 소프트 웨어적인 오버헤드가 발생하는데 hit ratio와 TLB reach의 향상으로 상쇄될 수 있다.

### 역 페이지 테이블(Inverted Page Table)

- 8.6.3절에서 역 페이지 테이블의 목적은 페이지 테이블이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을 줄이기 위함이었다.
- 이 테이블은 on 테이블은 on 테이블은 on 테이블은 on 테이블은 하목을 갖는다.

• 각 페이지 프레임에 어떤 가상 메모리 페이지가 저장되어 있는지의 정보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물리 메모리 양을 줄인다.

# 프로그램 구조(Program Structure)

• 왼쪽의 구조가 더 좋다.

이 외에도 입출력 상호 잠금과 페이지 잠금 등을 고려해야 한다.

# 대표적인 OS의 예시들

Linux

Windows

Solaris

## reference:

https://velog.io/@wngud4950/CS운영체제OS-가상-메모리-Virtual-Memory

https://jwprogramming.tistory.com/56

https://velog.io/@fldfls/Trashing-working-set

https://itdexter.tistory.com/410

https://will-behappy.tistory.com/25

https://will-behappy.tistory.com/25